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정확히 하자.”

1. 서론

돼지 콜레라 박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모든 양돈인들의 의지가 강렬해지면서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국의 주요 양돈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항체 양성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방역당국의 지도 및 양돈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태조사에서는 아직까지 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하게 접종하지 않는 양돈장이 무려 47.1%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방역 당국에서는 출하돈 및 사육돈에서 채혈한 혈액에서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를 측정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경남지역 7개 농가, 전남지역 3개 농가, 경북지역 26개 양돈농가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역 당국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부과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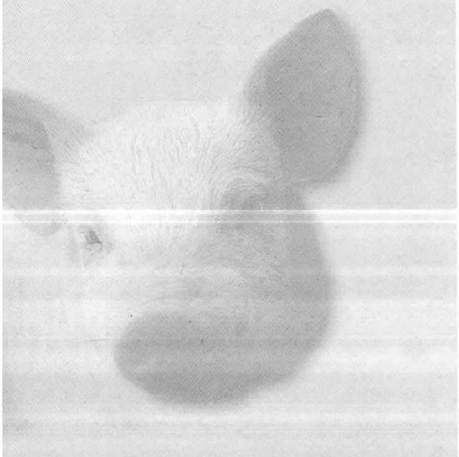
이러한 돼지 콜레라 박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장하기 위하여 양돈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를 설립하였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요할 때이다.

본 고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확한 예방접종 시기, 주사 부위, 주사 방법 등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예재길 부장

(엘랑코코리아 연구개발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 한 마리씩 손으로 보정하여 주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긴 판자로 돼지를 한 곳으로 몰아 놓고 주사하는 방법도 있으며, 사료를 몇 시간 급여 중지 후 사료 재급여 시 돼지가 일시에 사료를 먹을 때 혹은 청초를 넣어두고 돼지가 그것을 먹을 때 주사하면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쉽게 주사할 수 있다.

2. 정확한 예방 접종 시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는 양돈장의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특히 모돈에서의 항체수준, 다른 질병의 발생 상태에 따른 여러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시기 및 자돈의 이유 일령에 따라 예방접종 일령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를 박멸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입법 예고한 돼지콜레라 방역 실시요령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를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최근에 확정되어 권장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새끼돼지는 생후 40일(5~6주)째에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한다.

2)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중부 2~4주전 즉 분만 20일 전후에 1회 접종한다.

3) 수입되는 돼지는 수입검역 완료 후 출고시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 후에 2차 접종한다.

4) 양돈장 인근 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새끼돼지는 생후 30일(4~5주)째에 1차 접종하고 생후 50일(6~8주)째에 2차 접종하기를 권장한다.

5) 양돈장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는 양돈 전문 수의사의 상담을 받아 자기 양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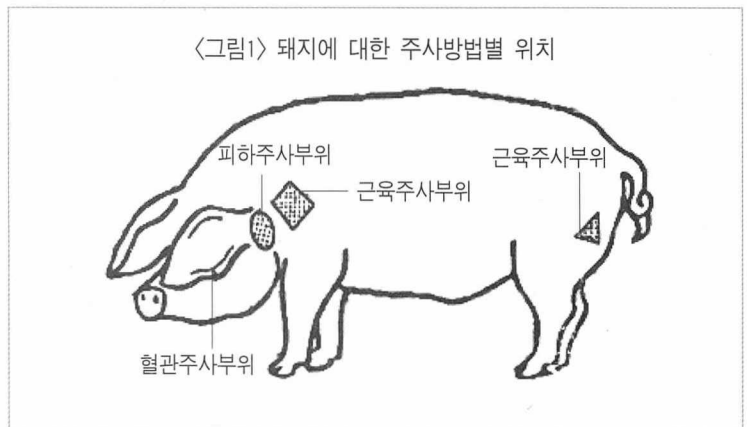
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정확한 예방접종 주사 부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에 근육주사 하여야 한다. 돼지에 근육주사 할 수 있는 부위는 뒷다리의 대퇴부, 머리 부위의 이근부가 있다. 어린 자돈의 경우 뒷다리를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안쪽 대퇴부에 근육주사하기 편리하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부위는 대부분 이근부에 주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근부는 <그림1>과 같이 귀와 어깨의 중간 부위이다. 육성 자돈의 경우 귀를 잡으면 돼지가 뒤로 물러나려는 습관이 있어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며 이때 주사하면 된다.

<그림1> 돼지에 대한 주사방법별 위치



4. 효과적인 예방접종 방법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 한 마리씩 손으로 보정하여 주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긴 판자로 돼지를 한 곳으로 몰아 놓고 주사하는 방법도 있으며, 사료를 몇 시간 급여 중지 후 사료 재급여 시 돼지가 일시에 사료를 먹을 때 혹은 청초를 넣어두고 돼지가 그것을 먹을 때 주사하면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쉽게 주사할 수 있다.

예방 주사할 때는 한 손에 표시할 수 있는 메직 펜을 들고 반드시 예방 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 사용하는 주사침으로는 18케이지 규격을 사용해야 주사하는 과정에 부러지는 위험이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9케이지는 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17케이지는 주사침이 너무 굵어 주사액이 주사 후 밖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다. 주사침의 길이는 자돈의 경우 1인치나 1과 1/4인치 정도로 짧은 것이 자돈의 이근부 주사시 효과적이다. 짧은 주사침은 특별히 주문하든지 양돈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주사침이 너무 짧은 경우 예방 접종약이 피하에 머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너무 깊어 들어가 척추의 뼈를 손상



하거나 척추에 주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모든에 주사시는 18케이지 1과 1/2인치 혹은 2인치 길이의 보통 주사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5. 결론

돼지콜레라의 박멸을 위한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이 수립되어 활발히 진행되어가고 있고 양돈인들도 돼지콜레라 박멸의지가 높은 이때 양돈관련 모든 분야에서 합심 노력하여 우리 양돈인들의 숙원 사업인 돼지콜레라의 박멸을 위하여 대동 단결해야 할 때이다.

우리 나라 모든 양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단시간내에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막고 나아가 우리 나라가 돼지콜레라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방접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정확히 그리고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길 밖에는 없는 급박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기와 방법으로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완벽한 예방접종이 된 후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의 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정확히 그리고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길 밖에는 없는 급박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돈산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돼지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100%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양돈**